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호세아 6:1~3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2.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하는 이유”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 | | | |
|-------------|-------|----------------------|-------|-----|
| 목도 | | | | 다함께 |
| 성시 | | 시 103:2 | | 인도자 |
| 찬송 | | 301장(통 460장) | | 다함께 |
| 기도(또는 사도신경) | | | | 다함께 |
| 성경봉독 | | 호세아 6:1-3(구약 1214면) | | 인도자 |
| 메시지 | |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하는 이유" | | 인도자 |
| 찬송 | | 559장 | | 다함께 |
| 주기도문 | | | | 다함께 |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겨움이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제 각기 처소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모인 우리 식구들이 어떤 각오로 올 한 해를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란 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가 고안해 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세워놓은 기준에 맞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이라는 것이 내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처럼 혼합주의적인 신앙행태 내지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국가 태동 시기였던 B.C.931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벤엘과 단에 제단을 쌓은 뒤 거기에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마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절대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호 6:1-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호 6: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어 그 나라 자체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멸망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잘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호4:6).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턱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옛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끝내는 북이스라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는 인애(공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혼합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로!

교회는 지난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회 회복과 개혁을 천명하고 2021년 교회 행동지침 중 두번째를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제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성

2021 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 2월 19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계홍 장로)는 2021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신학생·교역자·직원·선교자 자녀·극빈자·장애인 등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 등

하기 위한 시작점을 2017년 박노철 목사 측의 주거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으로 중단되었던 장학생 선발 및 교회학교 교육컨텐츠 제작 환경 조성(4면 참조) 등으로 하였다.

록한지 1년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한다.

서류 제출은 교구 추천서,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2월 19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잘 하였도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2020년 향존직 은퇴식이 열렸다. 이번 향존직 은퇴식은 본당 회복 후 처음으로 열린 향존직 은퇴식으로 의미가 더 컸다.

이 날 은퇴자들을 대표하여 조정식 장로의 인사 말씀이 있었으며, 집사 은퇴자 대표로는 이영

조 집사가, 권사 은퇴자 대표로는 이영희 은퇴권사가 은퇴패를 받았다.

특별히 이종윤 원로목사의 은퇴자들을 위해 주신 권면의 말씀과 축도는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2월 26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인원에 맞게 변동)

7. 응모내용

-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다. 교회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예배로 인해 인터넷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 좌측 사진 설명

- ① ② 은퇴패를 받는 조정식 은퇴장로와 오광환 은퇴장로
- ③ 두 은퇴장로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임상현 장로와 이계홍 장로
- ④ 은퇴집사 대표로 은퇴패를 받는 이영조 은퇴집사
- ⑤ 은퇴권사 대표로 은퇴패를 받는 이영희 은퇴권사
- ⑥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이종윤 원로목사
- ⑦ 은퇴자 전원
(사진촬영 : 정승균 집사, 윤요셉 집사)

항존직 은퇴식 - 권면의 말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헌신과 상급

마태복음 18장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만 달란트는 억, 조 단위를 넘어 12경이나 되는 큰 액수입니다. 12경의 빚을 졌다면 한 국가도 감당하지 못할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탕감 받은 놀라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 자기 소유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종'이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계산함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이 다섯 달란트가 되었던, 두 달란트



이종운 원로목사

가 되었던, 한 달란트가 되었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본문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받은 두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전

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분의 수고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은퇴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두 달란트 인가?" 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각의 사람들의 재능을 아시고 두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달란트를 주신 것은 감사해야 할 뿐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양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느냐입니다.

감격과 감사를 해야 할 은퇴식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존직 은퇴식

교회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이종운 원로목사님, 교회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부목사님들, 선후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교회의 분쟁의 끝에서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는 논현동에서 시작하여 반포동을 거쳐 대치동에 교회 건축을 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회는 목회자신학세미나, 김치세미나 등 수많은 행사와 국내외 전도 선교활동 등을 교회 건축을



조정식 은퇴장로

핑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교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 시대에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종운 원로목사님은 매일 새벽 건축 현장을 찾아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기도로 그날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고 성도님들은 저마다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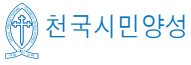
자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서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서울교회를 섬기며 울고 웃던 지난 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둠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라 믿고 신앙의 후배들께서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은퇴 후에도 나라와 서울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양질의 교회학교 교육컨텐츠 제작환경을 위하여



20여 년 전에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신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 가능한 사회가 온다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현재 이 단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 사진 찍는 단순기능부터 문서작성, 그림그리기, 영상편집, 은행업무, 세금납부, 장보기, 업무결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불거진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예배와 헌금까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드리지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제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교회 교육과 코로나 사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대응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향이 강해지는 시점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나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수도, 그렇다

고 전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역설적으로 이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해매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앙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의 도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교회는 설교와 교회 교육 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회는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 이계홍 장로) 중심으로 교역자들의 교육 컨텐츠 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506호에 교육용 영상제작을 위한 기자재들을 모으고 보충해서 제작환경을 조성하였다.

교역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구현한 설교나 교육 컨텐츠들을 제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배영상에 쉽게 접하고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하고자 한 구상이다. 교회학교 교역자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현재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기자재는 추가할 예정이다.

(글·사진 : 유은경 집사)



2021 성경암송대회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 2월8일 | 월 | 레 14:33-16:34 | | 수 15-19 | |
| 2월9일 | 화 | 레 17-19 | | 수 20-24, 삿 1-3 | |
| 2월10일 | 수 | 레 20-22 | | 삿 4-8 | |
| 2월11일 | 목 | 레 23-25 | | 삿 9-14 | |
| 2월12일 | 금 | 레 26-27 | | 삿 15-21 | |
| 2월13일 | 토 | 민 1-2 | | 룻 1-4, 삼상 1-3 | |
| 2월14일 | 주일 | 민 3-4 | | 삼상 4-11 |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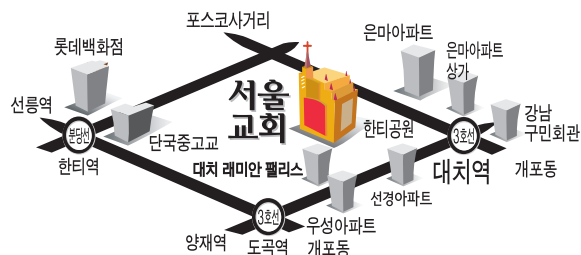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설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가족들 간에 잘 지키게 하시고, 조상 숭배의 우를 범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2.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20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토) |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